

폭풍속의 리더십

행 27:21-44

성경은 소망을 가리켜 '영혼의 닻'이라고 부릅니다. 닻은 배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닻이 없다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떠밀려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중심 잡이'도 없이 시련을 맞게 된다면, 이리저리 휩쓸려 결국은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티크바'입니다. 티크바는 노끈을 의미합니다. 노끈은 다른 두 개의 줄을 서로 꼬아 하나로 엮어놓은 줄입니다. 즉 소망이란 떨어져 있는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비로소 소망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복중에 태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가 죽어도 산모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모가 죽으면 태아는 따라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모는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란 단어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양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양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희망의 리더십, 바울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탄 로마행 배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광풍이 일어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로 인해 배는 이리저리 밀리고 배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영혼의 닻을 로마 군대에 둔 백부장 율리오도, 재물에 둔 선장이나 상인들도 생과 사를 가르는 폭풍우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광풍을 만나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세 가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환난을 예견하고 그레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밝혀내어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수를 이용해 조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도리어 살립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그레데를 떠나기 전에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제 밤중까지 두려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믿음으로 자신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몇 날이 지나도록 캄캄한 밤만 지속되고 별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는 광풍은 이리저리 배를 끌고 다닙니다. 바울은 연일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혼돈에 빠져듭니다. ‘여기서 죽는다면 나의 삶은 무엇인가, 로마로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가시지 않습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자꾸만 일이 잘못 되어 갑니다. 굳게 잡았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러다가 정말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목표가 사라질 때, 절망과 의심이 폭풍처럼 휩쓸고 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아이가 태어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신의 기력이 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결과는 고통이었고 저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창 17:4~5). 아브라함은 어지럽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숨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과 맞부딪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구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산 너머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폭풍우 속에서 여러 날 동안 굶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과 혼돈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나타나십니다.

찾는 자를 도우시는 능력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듣고 밤을 지새웠다는 것입니다. 길게 잡아 24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 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루를 보낸 후에 말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수많은 고통, 아픔, 눈물을 겪었으며, 그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자, 바울은 의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찬송도 불렀을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빌으시네”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며 절망적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추종자들을 죽인 후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의 믿음은 낙엽처럼 흩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로렘나무와 호렘산을 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아주시고 더 깊은 곳에 영혼의 닳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명이 영혼 가득히 차 오를 때 비로소 확신에 찬 소리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전했습니다.

뿌리 없는 말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생명이 됩니다. 설익은 과일은 사람들의 입에서 내뿜어지지만, 잘 익은 과일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은 있습니다. 속도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명 앞에서 겸손을

둘째,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27~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이십 길 이 되었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닳 벗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닳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느보 산까지였습니다. 그는 청년처럼 건강하고 눈에 충기가 넘쳤지만, 사명을 완수했기에 그곳까지만 살았습니다. 에녹

은 생명이 있었지만, 그의 사명이 끝났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명 받은 만큼 사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자를 알아봅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를 알아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알아봅니다. 백로는 백로끼리 오리는 오리끼리 모여 다니는 법입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사공들은 바다 수심을 재어본 후 거루, 즉 구멍정을 몰래 내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눈치 챈 바울이 재빠르게 백부장 율리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은 거룻배를 묶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고 사공들이 배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죄수의 말을 들은 셈입니다. 목적이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행하소서”(라 10:4)라고 화답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돕는 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엘리아가 호렘산에 숨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롬 11:2~5).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다면 칠천의 용사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시도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의 적음을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삶을 시작하려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자존심이 용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교만하다 못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사명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 백부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명 앞에서 겸손하기는 백부장 율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죄수인 바울의 말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마지막 보루였던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사공들이 자신들만 살기 위해 도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겐 되돌아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갈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흥해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셋째, ‘먹고 힘내는 것’입니다. 33, 34절 말씀과 4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폭풍우가 몰아쳐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이 이뤄질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 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사태를 관망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사태를 적극 헤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육지를 발견하고 마침내 희망의 닻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1914년 12월 미국 뉴저지 웨스트오렌지에 있는 토머스 에디슨의 실험실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값어치가 200만 달러 이상 되는 각종 실험 도구들이 전소되고 생애를 바쳐 기록한 실험 일지들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자신의 꿈과 희망이 잿더미로 변한 실험실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군.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렸으니 말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나이가 예순 일곱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역경의 비바람이 불어 닥칠지 모릅니다. 고난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겨내려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밤 고통 중에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한 사람들은

너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

사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용감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